

山雲 李亮淵의 『一日行事大略』 연구

朴東昱*

目 次

1. 서론
2. 『일일행사대략』의 편제와 개관
3. 『일일행사대략』의 내용과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

『一日行事大略』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필사본으로 3권 1책이다. 서문이 1839년(산운의 나이 69세)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책이 집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一日行事大略』은 하루의 日課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으로 일과지침서이다.

『一日行事大略』은 총 38개 항목이다. 상권에서는 사친과 독서를 중심으로 7개 항목을, 중권에서는 몸과 정신, 태도, 인간 관계 등 20개 항목을, 하권에서는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11개 항목을 다루고 있다. 상권은 기존의 일과지침서처럼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있지만, 중권과 하권은 인간사의 다종 다기한 관계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산운이 밝힌 것처럼 하루에 지켜야 할 일이지만 평생 동안 지켜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38개의 항목을 다른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저자의 편찬 의도에 따라 각 권의 편제별로 살펴보았다.

요즘 시테크와 자기계발서가 크게 주목받고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교수.

것이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끌어내기보다는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다. 『一日行事大略』에는 이미 시효가 만료된 가치도 있지만 인간 사회의 보편적 문제를 담은 것들도 적지 않아,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핵심어 이양연, 『一日行事大略』, 일과지침서, 자기계발서, 관혼상제.

1. 서론

山雲 李亮淵(1771~1856)은 18세기에 태어나 19세기에 활약한 시인이다. 다른 시인보다 적은 숫자의 시를 남겼지만 조선 한시의 새로운 시도와 모색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보다 큰 족적을 남겼다. 그동안 산운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학위논문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¹⁾ 최근에 산운의 한시 완역과 산운 시의 새로운 부면들을 정리한 연구들이 이어졌다.²⁾ 산운의 저술들은 계속 발굴되었으며 앞으로도 새롭게 찾게 될 여지가 남아 있다.³⁾

『一日行事大略』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는 필사본으로 3권 1책이다. 서문이 1839년(산운의 나이 69세)에

-
- 1) 이용욱, 『山雲 李亮淵의 詩世界』,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1; 『山雲 李亮淵과 그의 詩世界』,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 안동한문학회, 1991; 『山雲 李亮淵論』, 『조선후기한시작가론 2』, 이화출판사, 1998; 전송열, 『山雲 李亮淵 詩 研究』,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3; 박동욱, 『山雲 李亮淵의 詩世界 研究』,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0.
 - 2) 이양연(지은이), 박동욱(옮긴이), 『눈 내린 길 함부로 걷지 마라 - 산운집』, 소명출판, 2021; 『臨淵堂別集 제가 평으로 살펴본 山雲詩의 특징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54집, 한국시가학회, 2021; 『山雲 李亮淵 한시에 나타난 민요정서의 한시적 변용』, 『동방한문학』 제89집, 동방한문학회, 2021; 『산운 이양연 한시에 나타난 허무 의식 연구』, 『漢文學論集』 제61집, 근역한문학회, 2022.
 - 3) 기왕에 『臨淵堂別集』, 『臨淵百詩』 등이 이미 소개되었다. 이외에도 필자가 『嘉禮備要』(장서각) 『淵翁尺牘』(성균관대 존경각), 『喪祭輯笏』(고려대 도서관), 『一日行事大略』 등을 찾아냈다.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책이 집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一日行事大略』은 하루의 日課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으로 일과지침서이다. 정환희는 하루 생활에 대한 규율성을 담은 글 모두를 일일지침서라 명명하면서, 안정복의 『下學指南』, 윤최식의 『日用指訣』, 최동익의 『齋居日用三十五首』 등을 언급했다.⁴⁾ 이외에 황덕길의 『日用輯要』를 추가할 수 있다.⁵⁾ 그런데 윤최식의 『日用指訣』⁶⁾에 현재는 逸失된 것으로 보이는 『日用要課』, 『日用要訣』 등이 자주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一日行事大略』은 이번에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는 자료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하루 동안 처리할 일과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다. 다른 일과지침서가 하루 24시간을 2시간 간격으로 시간대별로 정리하거나 시간대별과 항목별의 혼합 형태로 정리했다면, 이 자료는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시간대별(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음)과 항목별로 기술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서 이양연 연구의 지평과, 조선 후기 일과지침서의 외연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2. 『일일행사대략』의 편제와 개괄

『一日行事大略』은 3권 1책인데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人道

4) 정환희, 『조선 후기 사대부의 일일지침서 연구 : 성리학적 공부론을 중심으로』, 『동방학』 36집,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7.

5) 김순희, 『下廬 黃德吉의 『日用輯要』考察』, 『서지학연구』 제59집, 한국서지학회, 2014.

6) 박동욱 역, 『일용지결』, 한국국학진흥원, 2018; 윤성호, 『선비의 日課 공부: 『일용지결』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1집, 한국교육사학회, 2019; 조현철, 『『日用指訣』에 나타난 조선 후기 선비의 일상』, 『횡단인문학』 제7호,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의 실천을 목적으로 해서 상권에서는 事親과 讀書을 주로 다뤘고, 중권에서는 몸과 정신, 태도, 인간 관계 등 갖가지 자질구레할 일을 정리했으며, 하권에서는 관혼상제와 처세를 위주로 기록했다.

<표 1> 『일일행사대략』의 편제

편명	세부 목록	항목수	내용
上篇	(1) 寤睡	1칙	起床
	(2) 起寢	1칙	盥櫛衣冠
	(3) 晨謁	8칙	晨謁, 晨省, 讀書
	(4) 告飯	6칙	부모님 식사 봉양
	(5) 讀書	5칙	讀書의 차례와 방법
	(6) 寫字	5칙	글씨 쓰기
	(7) 及暮	7칙	昏定, 讀書, 省察
中篇	(1) 身	3칙	몸
	(2) 性	6칙	仁, 義, 禮, 智, 信
	(3) 心	1칙	마음
	(4) 情	1칙	감정
	(5) 氣	8칙	氣
	(6) 氣像	3칙	몸가짐
	(7) 言笑	2칙	談笑
	(8) 動靜	10칙	행동거지
	(9) 師弟	15칙	스승과 제자
	(10) 兄弟	1칙	형과 아우
	(11) 夫婦	8칙	남편과 아내
	(12) 子女	2칙	자식
	(13) 親戚	1칙	친척
	(14) 奴婢	1칙	노비
	(15) 接隣	2칙	이웃
	(16) 衣服	15칙	옷
	(17) 飲食	12칙	음식
	(18) 治産	11칙	살림살이
	(19) 財用	4칙	재물
	(20) 凡百器用	3칙	도구

下篇	(1) 祭祀	14칙	祭禮
	(2) 居喪	14칙	喪禮
	(3) 冠	10칙	冠禮와 笄禮
	(4) 昏	10칙	婚禮
	(5) 應邦役	1칙	나랏일
	(6) 接賓友	12칙	손님과 친구 접대
	(7) 出入	7칙	외출
	(8) 擇交遊	5칙	교육
	(9) 疾病	5칙	병
	(10) 處變	3칙	변고에 대처
	(11) 關異端	5칙	이단을 물리침

상편은 7개 항목, 중편은 20개 항목, 하편은 11개 항목이다. 항목들은 짧게는 1칙에서 길게는 15칙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 칙의 길이는 몇 행에 불과한 짧은 분량이 대부분이다. 상편에서는 일과를 중심으로, 중편과 하편은 人道에서 필요한 다양한 항목들을 다루었다. 다른 일과지침서는 항목마다 조선과 중국의 서적과 인물을 인용하고 있다. 『一日行事大略』에서도 이런 인용이 있긴 하지만, 저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한 것이 더욱 많다.

3. 『일일행사대략』의 내용과 의미

(1) 事親과 讀書 - 上篇 -

상편은 모두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事親과 讀書의 문제를 주로 논하였다. 事親은 ‘晨謁’과 ‘告飯’條에, 讀書는 ‘讀書’와 ‘寫字’條에 각각 정리되어 있다. 이외 ‘及暮’條에 저물녘의 할 일을 따로 정리해 두었는데, 여기에서 昏定과 讀書를 다뤘다.

처리할 일이 있거든 부모님을 대신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니, 부모님이 늙었으면 더욱이 처리할 일을 버려두고 모르는 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인들에게 일일이 지시하되 모름지기 단장하고 입해서 소리를 낮추어 상세히 말하여 반드시 미덥게 한다. 책상 앞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곳곳이 앉아서 밝은 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자세히 읽기[精讀]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⁷⁾

먼저 ‘晨謁’에서는 晨謁과 晨省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晨謁은 새벽에 사당에 가서 문안을 드리는 예인데 이것은 간략히 1칙만 할애했고, 나머지는 모두 晨省에 할애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잘 때나 따로 잘 때나 모두 부모님이 잠에서 깨시지 않게 조심하였다.⁸⁾ 위의 인용문을 보면 아침에 처리할 일들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晨謁, 晨省, 노복에 대한 업무 지시, 精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부모님의 아침 안부를 묻고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 드리고 부모님 방을 청소하는 일을 가장 강조했다. 무엇보다 모든 행동에 부모님에 대해 공경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慎齋 金集처럼 趾下之拜(발꿈치에서 절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고 부모님이 추운지 더운지 안부를 여쭙는다.⁹⁾ 부모님이 세수하실 물과 수건 등 각종 물품을 챙겨 드리고 세수가 끝나면 잘 정리해 둔다.¹⁰⁾ 그런 뒤에 부모님의 베개와 침구를 정돈하고 방을 청소하며, 요강이나 唾具 등도 청결하게 관리한다.¹¹⁾ 그 다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언급했다. 부모님이 계실 때 남을 꾸짖거나 떠들고 웃는 일을 조심하며,¹²⁾ 부드러운 낮빛으로 꼼꼼히

7) ‘晨謁’條 [8]: 有幹事, 則代親任勞, 親老, 尤不可置之不知. 使婢僕者, 一一指揮, 須粧臨低聲, 詳言必信. 就書案前, 斂膝危坐, 心如皦日, 精讀不怠.

8) ‘晨謁’條 [2]: 就父母寢所, 立於門外, 察其動靜, 若覺寐則入, 不者, 不可擾動. 俟其覺寐而入, 侍寢, 亦然. 不可自我聲跡, 而覺長者之寐.

9) ‘晨謁’條 [3]: 拜于趾下(慎獨齋行之), 怡聲下氣, 有問則問, 古有問燠寒安否之節.

10) ‘晨謁’條 [4]: 進盥清沃, 舉巾敬授, 開解網巾, 羅列梳鑑等物, 盥畢, 復收置故處也.

11) ‘晨謁’條 [5]: 斂親枕衾諸具, 置之常處. 斂時, 不可輕翻生風, 精掃室堂, 几案等什物, 當拂塵精潔, 溺缸唾器等物, 則手自磨洗, 使不垢汙.

챙겨 드리다가 부모님이 아침 식사를 다 마치면 물러 나왔다.¹³⁾

식사를 다 마치시게 되면 부부가 몸소 소반을 들고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식사를 할 때에 만약에 먹으라고 명하시거든 곧바로 마땅히 명을 받들어야 한다. 다른 곳에 물러가 밥을 먹더라도 물을 올리거나 밥상을 물릴 때를 가만히 따져 보아서 급히 나아가서 챙겨드리되 어기거나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고, 모시고 밥을 먹게 될 때에는 간간히 보살펴 드려야 할 것이다.¹⁴⁾

‘告飯’에서는 부모님께 음식을 올리는 것을 다루고 있다. 식사를 올릴 때에는 직접 부엌에서 음식의 삶고 익힌 정도와 식었는지 따뜻한지 여부를 직접 살피고, 음식을 소반에 담아 직접 올려야지 하인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¹⁵⁾ 그러고는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직접 식기의 뚜껑을 열거나 생선의 뼈와 고기를 발라 드리는 등 꼼꼼히 살펴 드린다.¹⁶⁾ 물을 올릴 때에도 부부가 물의 적절한 온도를 직접 살핀다.¹⁷⁾

위의 인용문은 식사가 끝났을 때 해야 할 일을 적시하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물러나 따로 식사를 하거나 간에 부모님을 챙겼다. 산운은 아들 내외가 부모님의 식사를 조리과정부터 직접 챙기고 하인들에게 완전히 맡기지 말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12) ‘晨謁’條 [6]: 大抵, 侍下居家, 如在朝廷, 不敢放聲言語, 況叱責喧笑乎.

13) ‘晨謁’條 [7]: 細料長者之意欲, 或問其所欲而敬進之, 必柔色而溫之, 侍坐周旋, 食畢乃退.

14) ‘告飯’條 [4]: 食畢, 夫婦, 親自舉盤退. 食時, 若命食, 則即當承命. 他處退食, 暗料進水退盤時, 而急進周旋, 不可違緩, 侍食則間間省檢.

15) ‘告飯’條 [1]: 料其將飯, 入內檢察, 廚下烹飪之適於親性, 調其寒暖. 備設盤具, 手自舉盤敬進, 不可專任於婢奴之手.

16) ‘告飯’條 [2]: 侍坐, 夫婦, 對坐盤左右, 或啓蓋, 或揀魚肉骨, 其他檢察, 細細不遺.

17) ‘告飯’條 [3]: 進水, 夫婦親進, 適其寒暖, 不可專任他人之手.

글을 읽는 차례는 『擊蒙要訣』에 상세하게 실려 있으니 마땅히 이 책에 의거해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때가 없지 않으나 대체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은 실상에 힘써서 그 뜻을 먼저 세운 뒤에야 비로소 책을 펴서 聖賢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구절마다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感服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어 그 참된 맛과 큰 즐거움을 못 이기게 된다.¹⁸⁾

‘讀書’에서는 독서방법과 독서차례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격몽요결』의 차례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산운이 율곡을 사숙했던 사실은 이미 앞선 연구에서 살핀 바 있는데¹⁹⁾, 『일일행사대략』에서도 『격몽요결』을 여러 번 언급하였다. 『격몽요결』에는 독서의 차례가 나오는데 먼저 『소학』을 읽고, 유학의 경전인 五書와 五經을 순서대로 읽은 뒤에 송대 성리학자들의 저술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간혹 형편에 따라 다른 책을 우선 읽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 방식을 따르기를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경서 위주의 독서를 강조하면서, 책을 읽을 때에는 바른 자세에서 聲讀할 것을 주문했다.²⁰⁾ 먼저 文義를 먼저하고 義理는 뒤에 한다.²¹⁾ 꼼꼼히 읽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너무 심하게 따지다가는 억측

18) ‘讀書’條 [4]: 讀書次第, 要訣詳載焉, 當依此不差, 或不無隨勢權時之宜, 而大抵誠勤務實, 先立乎其志然後, 始得開卷, 對越聖賢之言, 節節感歎敬服, 不覺手舞足蹈, 不勝其真味大樂.

19) 박동욱, 『山雲 李亮淵의 詩世界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2~14쪽.

20) ‘讀書’條 [1]: 非聖賢書, 不可對眼, 一思慮, 整衣帶, 對案長跪, 敬以開卷, 或諷詠, 或朗讀, 其合意發興處, 鏘鏘然若出金石聲.

21)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吳道一, 『西坡集』, 『困得編[下]』: 옛사람이 이른바 글 뜻을 먼저 하고 의리를 뒤에 하라고 말한 것은, 글 뜻을 소략하게 여기고 의리는 정밀하게 여긴 것으로서 소략한 것을 다하지 않으면 정밀한 것을 말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람들에게 소략한 것을 먼저하고 정밀한 것을 뒤에 하게 한 것이니 이는 특별히 글 읽는 工程이 순서가 있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자 문자의 말단에 구구해서 희미한 뜻을 고집해 말했다고 하겠는가? [古人所謂先文義而後義理者, 以文義是粗底, 義理是精底, 粗者未盡, 則不可言精, 故必使人先粗而後精, 此特言讀書工程之有序也. 豈徒區區於文字之末, 執言迷旨之謂

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두나 토를 정밀하게 붙여야 한다.²²⁾ 또, 일정한 공부 분량을 정해서 날마다 지켜야 하고, 의심스럽거나 어려운 것은 기록할 필요가 있다.²³⁾ 稗史나 俚文 같은 속된 글에 빠지지 말고, 꼭 읽어야 할 글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읽지 않거나 子姪에게 읽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²⁴⁾ 대체로 경서를 위주로 한 꼼꼼하고 성실한 공부태도를 요구했다.

그 재주와 부지런함을 따져서 유명한 서예가들을 널리 배운다면 곧 이것도 선비의 하나의 기예이다. 그러니 혹시라도 거기에 뜻이 있다면 안 될 것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다만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옳다. 글씨 쓰는 방법은 마땅히 程子가 “매우 공경히 쓴다”는 교훈으로써 법칙을 삼아야 하고, 덤벙해서 글자를 빠뜨려서는 안 되며, 또한 괴이함을 숭상하고 놀람을 촉발하는데 영합해서는 안 된다.²⁵⁾

‘寫字’에서는 글씨 쓰는 태도와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글씨 쓰는 일도 선비들의 技藝임을 밝히면서 글씨에 뜻이 있다면 유명한 대가의 글씨를 흉내내는 것은 좋으나, 글씨에 특별한 뜻이 없다면 정확하

也?]

- 22) ‘讀書’條 [2]: 先文義, 後義理, 其真味與義, 潛思細咀, 不可臆料苛採, 句讀·吐音, 情密謹嚴, 不可胡亂脫誤.
- 23) ‘讀書’條 [3]: 嚴立課程, 一日, 幾行幾遍幾次. 置小冊子, 記疑難處, 不可今日明日, 進退加損, 心下, 不當毫忽容貸其暫間何妨底意思. 切不可昏怠厭倦之容色聲音也.
- 24) ‘讀書’條 [5]: 見今之讀書者, 莫不以常言例語, 悠悠泛泛鶻命吞棗而已. 不者, 必作若辭漫說看, 而支離不省, 只貪稗史俚文, 吟咏月露, 答問寒暄, 爲士子能事, 甚乎此則以爲迂迂不合時宜, 而棄廢之, 且禁子侄之恐或從事, 嗚呼! 不過爲聖門之悖流, 天地之罪物, 尙何言哉. 午飯如朝儀, 夕飯如朝儀.
- 25) ‘寫字’條 [3]: 量其才勤, 可以泛學名家, 則是亦士子一藝. 猶或有意, 無所不可, 不然, 只要精寫, 爲可. 寫法, 當以程子甚敬之訓, 爲則, 不可麤率誤落, 亦不可媚悅尙怪觸駭也.

게 써야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본문에서 언급된 정자의 말은 『近思錄』에 나온다.²⁶⁾ 그리고 글씨를 쓸 때 덤벙대서 글자를 빼먹거나 괴상망측하게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방구를 잘 관리하고 사용한 후에도 깨끗하게 보관해야 한다.²⁷⁾ 篆字에서는 八分體와 古文體가 가장 좋고, 큰 글자는 미불을 배우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희지와 조맹부체만 너무 애호하지만 중요, 장지, 안진경, 유공경의 글씨도 배울 만하다.²⁸⁾ 책을 베껴 쓸 때에는 또박또박 바르게 쓰고, 잘못 쓰거나 빠뜨려서는 안 된다.²⁹⁾ 글씨는 굳세거나 험하게 쓸지언정 이름답거나 예쁘게 쓰지 말아야 한다.³⁰⁾ 산운은 여러 사람의 글씨를 폭넓게 배우되 예쁘거나 기이하게 쓰기보다는 바르고 정확하게 쓸 것을 요구했다.

그 방이 더운지 추운지 여부를 살펴서 몸소 땀감을 가지고 온돌을 땀다. 겨울이면 힘을 써서 흙으로 틈을 막고 종이를 발라서 바람을 막으며, 여름이면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벼룩이나 모기의 침입이 없게끔 한다. 음식에 관해서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지 배고프거나 배부른지 하는 절자와, 침구와 자리가 해어지거나 오래되었는지 깨끗하거나 더러운지를 때때로 심력을 써서 독실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³¹⁾

26) 『近思錄』 권4 「存養」에, “나는 글자를 쓸 적에도 매우 공경스럽게 하는데, 이는 글자를 멋있게 쓰려고 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러한 행위 역시 공부이기 때문이다. [某寫字時甚敬 非是要字好 只此是學]”라는 정호의 말이 나온다.

27) ‘寫字’條 [1]: 硯具必精, 磨墨, 高執墨錠, 不使汗手, 寫畢, 刷墨汁毫端, 插管精置.

28) ‘寫字’條 [2]: 當法篆字, 八分·古文, 最好. 米元章, 以大字稱, 可學. 我朝名家, 非右軍·松雪則不屑如也, 其他鍾張顏柳, 皆可學.

29) ‘寫字’條 [4]: 寫冊, 尤爲精審楷正, 不可顛倒錯誤脫落.

30) ‘寫字’條 [5]: 蓋書, 宜勁莫美, 寧險勿巧. 近來氣弱心下, 故或此善於彼則有之, 而一槩論之, 非冶容, 則犯墨猪, 若有過逸勁健之態, 則爭笑唾擲, 此道, 亦已矣. 豈獨是道也. 詩文, 亦隨風大變, 不足遮眼, 久矣. 況乎今日也耶.

31) ‘及暮’條 [3]: 察其溫冷, 躬自把薪炊突. 冬則加力塞塗塗紙, 防風, 夏則深意精淨, 使無蚤蚊之侵. 至於飲食, 嗜厭飢飽之節, 衾具席簟之弊舊精穢, 時時用心力篤省

‘及暮’에서는 昏定과 省察를 다루었다. 먼저 昏定에서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펴 드리고 모시고 앉아 답소를 나누다 잠자리에 드실 때 절을 하고 물러난다.³²⁾ 혹시 부모님이 침소에서 글을 소리내서 읽으라 하면 명을 따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³³⁾ 위의 인용문을 보면 계절에 따라 防寒과 防蟲을 했고, 수시로 음식과 침구의 상태를 점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행동에는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깔려 있었다.

하루를 마무리 하는 시간에 省察의 시간도 가졌다. 저녁 시간에 단정히 앉아 소리를 내 글을 읽는다. 간혹 촛불을 끄고서 마음과 행동을 깊이 살피고,³⁴⁾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경계하였다.³⁵⁾

지금까지 상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상편은 하루의 일과를 중심으로 서술해나갔다. 다른 일과지침서들이 하루 24시간을 2시간 간격으로 12단계로 나누어 기술한 것과 다르게 산운은 7단계로 나누어 정리했다. 산운이 상편 말미에서 밝힌 것처럼 하루의 일과로 가장 강조한 일은 사친과 독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⁶⁾

(2) 인간 관계와 治産 - 中篇 -

총 20개 항목인데 먼저 성리학 개념과 행동거지에 대해 다루었다. 다음으로 인간 관계는 피붙이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는데,

者也.

32) ‘及暮’條 [2]: 燭至, 侍坐, 溫安笑語, 就寢, 拜如朝儀, 滅燭乃退.

33) ‘及暮’條 [6]: 若侍寢所, 如此, 可矣, 其有誦讀之命, 則尤當敬謹誦讀, 務悅親耳, 所謂樂其耳目者, 如此.

34) ‘及暮’條 [5]: 端坐誦讀, 或滅燭, 潛究心行. 張子所謂夜有得者. 侵更乃寢.

35) ‘及暮’條 [7]: 胡思亂想, 亦不可作, 況投隙乘昏, 暗作非理者乎.

36) 右, 上篇, 人之所行, 孰有大於事親乎. 故自鷄鳴以後, 至于退燭, 莫非養奉節度. 人非讀書, 則無以考所行之大小緩急. 故事親之暇, 俛入讀誦之節, 爲上篇.

그중 ‘師弟’와 ‘夫婦’에 가장 많이 분량을 할애했다. 이 밖에 살림살이[治産]와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세상에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은혜가 있으니 부모가 이것이다. 어찌하여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은혜’라고 이르는 것인가. 부모가 아니면 애초부터 이 형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더할 수 없이 큰 일이 있으니 師友의 사이를 이른다. 어찌하여 ‘더할 수 없이 큰 일’이라 이르는 것인가. 師友가 아니라면 곧 이러한 이치를 알 수 없을 것이니, 이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새나 사슴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새나 사슴인데 어찌 군신, 부자, 부부의 도리가 있을 것이고, 하물며 그 직분을 다하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더욱 하늘이 부여한 등급[天秩]보다 심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³⁷⁾

여러 다양한 인간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사제’와 ‘부부’ 관계가 가장 상세하다. 군신, 부자, 부부는 天秩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부자는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은혜[莫重之恩]이다. 그런데 師友가 없다면 군신, 부자,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師友 관계는 오히려 天秩보다 심함이 있게 된다. 그만큼 師友는 세상에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관계라는 설명이다.

퇴계 선생이 “스승에는 文師가 있고, 心師가 있다.”라고 한 것을 언급 하고서, 心師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³⁸⁾ 師弟 관계가 서로 스승과 제자라고 부를 뿐 타성에 젖게 되면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스승과 제자는 天屬이 아니라 義합이어서 서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

37) ‘師弟’條 [4]: 故曰, 天下, 有莫重之恩, 父母是也. 何謂莫重之恩. 非父母則初無是形. 天下, 有莫大之事, 師友之謂也. 何謂莫大之事. 非師友則不知此理, 不知此理, 禽鹿也. 禽鹿而安有君臣父子夫婦之道. 而況盡其分乎. 故曰尤有甚於天秩.

38) ‘師弟’條 [5]: 然師有文師心師, 退翁之言也. 東修負箠而投入門下, 一委其身, 忠孝之大, 萬理之衆, 得於心施於行. 故兼君臣之嚴、父母之恩, 事之如生, 報之以死, 此所謂心師也.

을 기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의지할 만한 스승을 얻게 되면서도 관계를 끊게 되면 禽獸의 지경에 나가는 것이다.³⁹⁾ 그렇다고 아무나 스승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스승이 될 만한 공부가 없는데도 師道를 자처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⁴⁰⁾ 지금에 師道가 붕괴되는 현상을 깊이 탄식하며, 공자와 맹자의 서적이 도리어 이익을 찾는 책이 되고 선생님이 앉는 자리가 곧바로 물건을 파는 저자가 되고 말았다고 탄식하였다.⁴¹⁾

먼저 致知의 공부를 선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스승에게 수업을 받지 않고서는 터득할 수 없는 것이다.⁴²⁾ 또, 教學相長の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어린아이의 스승이라 하더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며⁴³⁾, 張橫渠의 말을 들어 어린아이를 가르치게 되면서 얻게 되는 5가지 유익함을 제시했다.⁴⁴⁾ 여기에서는 주로 스승의 역할과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人家에서 암탉이 새벽을 대신하며 우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은 남자의 덕이 능히 의리로 다스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행히도 부인의 성품이 도리에 대단히 어긋나지 않은 데에 힘입은 것이다. 만약에 곧

39) ‘師弟’條 [6]: 相擇之道, 必審. 故相長之資, 益明. 若有姿質稍異之士, 挾卷往來, 理無可質, 道無可正, 徒然曰師曰弟子之稱而已, 空費日月, 因仍之間, 不勝其自失之悔矣. 噫! 天屬則無可去之義, 義合則非擇慎, 多窘踏之患, 如得可以依歸之賢, 而不遵指引之教, 不脩致死之誠, 而泛泛托名, 無端告絕, 則是甘就禽獸之域, 復奚難焉.

40) ‘師弟’條 [9]: 素無溫故知新之學, 而肆然自處乎師道, 實天地之罪人也. 孟子不曰人之患, 在於好爲人師歟.

41) ‘師弟’條 [13]: …… 嗚呼! 師道, 廢而天秩, 紊亂, 人紀壞絕. 孔孟之書, 反爲利卷, 巫丈之席, 便是販市, 吾亦抱利卷而坐販市, 何敢知天秩人紀所以然之故, 所當然之則也, 常慨然于此, 故自訟, 如是云爾.

42) ‘師弟’條 [7]: 或有才辨稍悟者, 所行, 不過出於私智, 故必先致知之工. 致知之道, 自非生知則不得從事受業, 耳以聞, 目以視, 口以讀, 心以思, 身以行, 不敢自信, 而信其師說也已.

43) ‘師弟’條 [14]: 經曰“惟教, 學半”雖小童之師, 亦可取益. 張子之言, 奚啻嚴明也.

44) ‘師弟’條 [15]: 橫渠曰, 絆已不出入, 一益也, 授人數數, 已亦可此文義, 二益也. 對之, 必正衣冠尊瞻視, 三益也. 常以因己而壞人才, 爲憂則不敢惰, 四益也.

바로 나쁘게 굴러 한다면 어느 남자가 두려워할 만하겠는가.”라고 하니, 동무들이 들고서 깔깔대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집안에서 능히 鄴⁴⁵⁾의 풍기를 면하게 되는 일은 대개 드무니, 자꾸 빠르게 빠져 들어가서 모르게 되는 것이다. 간혹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고 큰소리치는 자가 있으나, 반성을 해보면 낱알이 모두 이미 여기에 빠져든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큰소리를 치는 것은 구양수가 정사에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사를 즐겨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⁴⁶⁾

‘부부’를 다룬 글이다. 이 글은 부인의 성품이 뒤틀려 있다면 제어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가정 내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세태를 매우 戲畫의으로 기술했다. 특히 남녀 사이에서 욕망을 엄격히 절제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예를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⁴⁷⁾ 이에 畜妾하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⁴⁸⁾, 첩을 마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상대와의 問答을 통해 제시한다.⁴⁹⁾

45) 업하는 鄴縣의 아래라는 뜻으로, 업현은 지금의 河南省 臨漳縣에 있었던 지명이다. 이 지방의 풍속은 부녀자에게 門戶를 유지하게 한다. 재판이나 청탁, 또는 손님 맞이에 언제나 부인이 나서니, 이는 恒과 代 지방의 유풍이라 한다. 『小學 嘉言』과 『顏氏家訓』참고.

46) ‘夫婦’條 [4]: 余嘗以爲人家, 別無牝雞之遞晨者, 非男子之德, 能御之以義, 幸賴婦人之性, 不大段壞悖. 若直欲成惡性, 則何男子之可憚也, 同志之人, 聞之, 莫不絕倒矣. 今人家, 能免鄴下風氣者, 蓋鮮矣. 是駸駸陷入而不知也. 或見有大言不陷者, 退省則這這已陷入, 久矣. 故爲大言, 如歐陽公之短於政事. 故樂言政事者也.

47) ‘夫婦’條 [2]: 男女之別, 禮有大防. 雖七歲之幼, 姊妹之際, 有不同席坐, 不同器食之語, 不啻凜然, 况慾充而禮踈乎? 丈夫, 不於此斬嚴則餘何足復道也?

48) ‘夫婦’條 [5]: 卜姓之人, 每每沉溺. 薄跡其室者, 十居八九. 蓋斧隱月窟, 蠶藏花腮. 不悟傾滅之禍, 起於衽席之上也. 王茂弘, 江左第一人. 晉之中興元功, 得驅牛之恥於當時, 貽雷尚書之嘲於後世, 況乎其下, 不百千仞畜者乎?

49) ‘夫婦’條 [6]: 詰之者曰: “無好人, 非有德者言也. 子何傲俗, 至此之甚, 以爲無一人不受制於粉鬼之手乎?” ‘夫婦’條 [7]: 對曰, “子言, 誠是也. 然未知子亦非已陷之人耶. 吾明告子. 剛者無慾, 慾則不剛, 天下之剛腸者, 幾人. 天下無大之慾, 孰甚. 以天下至不剛之腸, 陷天下至無大之慾, 能幾人免夫.”

자녀는 그를 가르치는데 법도가 있게 하여서 사랑하고 가르치는 마음을 한결같이 열다섯 살 이전처럼 하면 곧 거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자녀들도 열다섯 살 이전처럼 한결같이 부모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정성스럽게 되면 곧 효자가 아닐 수 없게 된다.⁵⁰⁾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더러는 (남의 지식과) 비교하게 되고 (부모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혹은 원망해서 배반하게 된다. 사람의 집에 패륜을 하는 자식이 많고 사랑하는 부모가 드문 것은 진실로 여기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하물며 학식이 없는 사람에서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지기가 된 것⁵¹⁾은 천하에 지극한 즐거움이다.”라고 한 것이다.⁵²⁾

‘師弟’와 ‘夫婦’ 관계 이외에는 자녀, 형제, 친척, 노비, 이웃 등을 각 항목마다 1~2칙을 할애해서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위의 인용문은 자녀에 대한 것인데 요즘에도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다. 먼저 자식이 열다섯 살 이전인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대하고 자식은 부모를 대한다면 더 이상 유익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틀어지는 이유를 진단하고는, 韓愈의 말을 들어 부자간이 知己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통찰하게 있다.

그 외 ‘兄弟’에서는 형은 동생에게 따스하게 대하고 동생은 형에게 순종하면 그뿐이라는 원론적인 당부를 했고⁵³⁾, ‘親戚’에서는 사람의 현명함 여

50) ‘子女’條 [1]: 子女, 教之有法, 其愛之教之之心, 一如十五歲以前, 則庶幾得矣, 子女, 亦一如十五歲以前, 向慕父母心之誠, 則莫非孝矣.

51) 唐나라 韓愈의 『唐故朝散大夫董府君墓志銘』에 “賓接門下, 推舉人士, 侍側無虛口……太師賢而愛之, 父子間自爲知己.”라는 기록이 있다.

52) ‘子女’條 [2]: 不溺愛則或相較, 不恃恩則或怨反. 人家多悖子而罕慈父, 良由乎是. 况無學識之人. 故曰, 父子之知己, 天下之至樂也.

53) ‘兄弟’條: 兄弟之際, 兄盡友愛, 弟盡敬順, 常怡怡爲樂, 若有過, 不可遽加毆責, 深畜怒怨, 只以同受父母氣血爲貴, 物何足有無乎.

부모다는 骨肉의 정의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다. ‘奴婢’에서는 노비를 대할 때 은혜와 위엄을 함께 하지만, 그중에 은혜를 먼저 해야 함을 강조하며 노비의 실정에 대해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⁵⁴⁾ ‘接隣’에서는 이웃과 기본적으로 잘 지내야 하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絶交를 하거나 관청에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로 상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기조로 하고 있다.⁵⁵⁾

그 다음에는 자질구레한 물품과 家計 經營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먼저 ‘衣服’은 기본적으로 검소하게 입을 것을 주장했다. 반드시 고급스러운 비단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베, 목화, 모시, 명주로 된 옷을 입는다.⁵⁶⁾ 아울러 箕子의 유풍을 숭상해서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⁵⁷⁾

다음으로 冠과 띠[帶]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관에 대해서는 관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풍속이 되고 부형들이 자신의 자제들에게 관을 금지하는 현상에 대해서⁵⁸⁾, 띠에 대해서는 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띠의 쓰임새를 물어보는 정도까지 이른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⁵⁹⁾ 각각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관은 緇布冠, 幅巾, 程子冠, 儒冠 등만을 착용

54) ‘奴婢’條: 御奴婢, 恩威並至, 必使恩先於威也. 我東傳世奴婢, 其情可矜.

55) ‘接隣’條 [1]: 隣有相好之誼, 有無相濟, 非至惡則勿疾之已甚, 無對人毀訕, 便以感化爲心. ‘接隣’條 [2]: 若至惡之人, 敗常亂倫, 常絶之, 甚則告官斥黜, 可也. 水火盜賊疾病飢乏, 極力盡之, 赴救賑濟也.

56) ‘衣服’條 [4]: 布、綿、苧、紬四者, 産於我東者, 何待乎精細之綿綾而爲快也. 但不當垢弊自汙, 矯俗干名, 如溫公之言, 可也, 若至貧則亦何以干名之嫌而營營爲哉. 不知淡忘之爲得也.

57) ‘衣服’條 [5]: 我東衣服, 宜尙箕子遺俗. 士女, 遵白色, 則不惟精澹之可取. 不忘箕子之恩, 可謂懲諸庶民百世不惑者也.

58) ‘衣服’條 [6]: 冠帶, 服之最重且大者. 今不冠, 便成國俗. 至於父兄, 有禁其子弟者, 痛矣夫. 夫子以同人道於牛馬, 責人之不冠, 子路, 聖門高弟. 其言曰, “君子死, 冠不免” 萬石君, 雖見子孫, 不冠不見. 管寧, 臨危, 以一朝露頭爲平生罪尤, 夷狄, 且冠. 况乎堂堂冠帶古國之人, 胡然至斯.

59) ‘衣服’條 [7]: 今帶之名, 幾乎無跡. 故近畿幼童見帶, 則怪問於長者以何用何物者, 余或親視焉. 嗚呼! 豈意我東崇禮之俗, 聞於天下, 而至斯之極乎.

하라고 적시하였다.⁶⁰⁾ 그 이외에 深衣⁶¹⁾, 道袍⁶²⁾, 中赤莫⁶³⁾, 小襖衣⁶⁴⁾ (小襖衣의 오자로 보인다), 두루마기[周衣]⁶⁵⁾ 등에 대한 유래를 밝히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중에 소별의와 두루마기를 착용하는 풍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귀하고 천한 분수를 지키고 굽주리고 배부른 한 질차에 알맞게 하여서 질차가 맞고 구차하지 않게 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멋대로 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곧 예나 이제나 패망하는 화가 어떻게 이루다 셀 수가 있겠는가.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음과 뜻이 큰 것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먹는 것만 밝히기를 일삼아서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악착같이 하며 놓지 않아서 천하고 작은 사람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달게 여길 따름인 것이고, 둘째는 이치와 의리를 선택하지 않고 오직 탐욕만을 도모해서 비록 쌓아서 모아 놓은 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그 취하고 버리고 하는 분수에 대하여 어찌 논할 겨를이 있는가. 세 번째는 품질이 좋지 않은

60) ‘衣服’條 [9]: 緇布冠, 古制也, 幅巾, 宋賢所着也, 程子冠, 程子所制云. 但俗多失制. 儒冠, 明朝所賜也. 皆可着, 其餘, 不當着也. (笠子亦明制, 今人人所着, 此不復論)

61) ‘衣服’條 [10]: 深衣, 雖古制, 先賢, 各以所見, 制各不同, 未知其何制可從. 而上衣下裳之服, 只此而已. 既不詳於古制, 則直從大全圖式, 庶幾得之. 近見金泰濟所制裳有正幅, 以傍邪幅, 當袷之名. 其言, 節節有依據, 有志于斯者, 似不當以其近而忽之也.

62) ‘衣服’條 [11]: 道袍, 明朝所賜. 爲我東土民者, 於禮於燕, 不可不着, 深衣之次也.

63) ‘衣服’條 [12]: 中赤莫, 麗制. 雖無謂, 着之, 猶束帶, 由今見之, 豈不反爲冠帶古國士人之大幸也歟. 悲夫.

64) ‘衣服’條 [13]: 小襖衣, 卽中赤莫之去廣袖者, 私居之便服矣. 帶亦不稱焉. 故余年少之日, 侍親側及稍有志于禮律之人, 皆不服. 至于今日觀之, 則猶爲東人所尚者, 不服上衣則已, 旣服則捨此, 是可忍乎.

65) ‘衣服’條 [14]: 周衣, 我東中葉時, 宮門守護軍, 隆冬經夜, 大其襦而厚着綿, 以爲禦寒矣. 因以成俗. 余幼年, 非老人, 則罕見服此者, 不幾年, 而習俗之盛, 雖數歲兒, 無不服此. 此必其今日之先朕歟. 然凡百事物, 名正則言順, 其制似古之毛裘, 名以禦寒爲正, 則言不得不以木綿裘而順焉. 着厚綿, 入冬禦寒, 猶或無防. 噫! 其卑周衣之盛行, 何哉. 是則決非士子之近乎身者也.

것을 분별하지 않고 병을 꺼리지 않으며 비웃으면서 발길로 차서 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굶주린 파리나 결떡거리는 개와 같이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세속을 따라서 서로 숭상을 하고 사치를 지나치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극진히 하여 괴이하고 기이한 맛과 망측하고 숨씨있는 갖춤에 날마다 만 전을 허비하면서 다만 잔치 즐거기를 일삼는 것이다.⁶⁶⁾

다음으로 ‘飲食’을 다루고 있다. 위의 글에서는 음식으로 인한 문제를 식탐, 탐욕, 무분별, 사치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이외에도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으로 봉양할 것⁶⁷⁾과 부모님을 봉양할 음식을 함부로 남들 대접에 쓰지 말 것도 함께 권면하였다.⁶⁸⁾

술과 담배에 대한 언급도 무척이나 흥미롭다. 술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음식임을 밝히면서도,⁶⁹⁾ 자제들에게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⁷⁰⁾ 담배에 대해서는 간략히 유래를 밝히면서 張維가 愛煙家라는 說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졌을 것으로 의심하였다.⁷¹⁾ 父兄 앞에서 子弟들이 담뱃대

66) ‘飲食’條 [2]: 然守貴賤之分, 適飢飽之節, 節中不苟則可矣, 若縱恣不制, 則古今敗亡之禍, 何可勝數. 其禍, 大槩乎有四. 一不顧心志之大, 專事口腹之計, 自幼至老, 營營不舍, 甘歸賤小人之域而已; 二不擇理義, 惟貪饕是圖, 雖積蓄不厭, 其於取舍之分, 奚暇論哉; 三不辨麤惡, 不憚疾病, 不恥嘔噦, 而如飢蠅乞狗也; 四隨俗相尚, 窮奢極美, 怪奇之味, 妖巧之備, 日費萬錢, 只事宴遊之樂也.

67) ‘飲食’條 [4]: 但飲食, 出於婦人之手, 男子, 導率有素養親, 則竭力得甘旨. 量其嗜厭, 時其飢飽, 審微承籍, 溫色敬進, 不宜劃例計限.

68) ‘飲食’條 [5]: 又不當以奉親之物, 待賓, 茅容之待郭有道, 可見. 朱子以三牲之物, 與人深非之, 待賓, 則不可無視親疎之別, 而有豐約之異, 務其精潔, 則不當有加損. 古人以一韭之饌, 乃見人內政, 可不慎歟.

69) ‘飲食’條 [7]: 酒之於人, 不可無也. 亦不可有也. 其於事神之禮, 養孝之需, 賓主之會, 疾病之用, 康濟之具, 不其不可無乎.

70) ‘飲食’條 [10]: 大抵, 古今人, 以此縱恣傾覆者, 十居八九. 爲政者, 雖不可獨設權沽, 宜不使鱗開店爐, 如今日. 爲父兄者, 雖不能酷禁子弟, 猝成獨醒之侶, 又不當許其竹林之習, 甘取敗亡之禍, 則其於立綱敦風, 興禮嚴倫之厚, 豈曰小補之哉.

71) ‘飲食’條 [11]: 南草之出東, 不遠, 嘗見東史, 有南草, 自南方來. 張谿谷, 最好之.

를 손에 잡고 담뱃주머니를 허리춤에 차는 습관을 비판하며 예의의 무너짐에 담배가 한 몫을 했음도 밝혔다.⁷²⁾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길러주는 은혜를 치우치게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면 이치가 마땅히 부모가 하는 일을 대신 맡아야 한다. 어버이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은 뒤에야 거의 훗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후회하는 탄식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니 어떻게 편안하게 놀기만 하고 방종하고 태만하면서 이미 늙은 어버이에게 긴치 않은 자질구레한 일에 빠져서 어지럽게 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하물며 힘과 근육을 수고롭게 하더라도 굶고 추위에 떠는 고통을 면하지 못함이라. 아! 불효가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⁷³⁾

‘治産’은 곧 살림 살이에 관한 문제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님의 짐을 대신 떠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살림살이와 학업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도외시 하지 말고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⁷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한 인물로 程頤와 金集 두 사람의 예를 들었다.⁷⁵⁾

常疑谿谷，以大賢高弟，固當知此之不可，又不可不慮及後日之弊，至於無可奈何之地，而不能痛禁於世，反酷嗜於身，未可知也。不其史筆之誤耶。

- 72) ‘飲食’條 [12]: 壞禮傷風之弊，與酒之害，不可同日而語矣。斷斷無毫容之端，甚矣。子弟於父兄之前，携竹於手，佩囊於腰，偃蹇驕頑之習，令人增氣，父兄，不知之禁，反獎助之，嗚呼！進退慎齋之敬，肅若朝廷之嚴，於是乎亡矣。我東右禮之風，不可復反，此物，實爲之嚆矢也。
- 73) ‘治産’條 [2]: 人之幼也，莫不偏受鞠育之恩，及乎壯長，理當代任其務。不貽親慮，然後庶免風樹之感於他日，何可逸遊怠荒，使既老之親，汨擾於冗細之務。而尤況勞力劬筋，未免餓凍之苦乎。吁！不孝，孰甚焉。
- 74) ‘治産’條 [5]: 見世之治産者，全廢學業，讀書者，不顧治産，只以治産學業，判然兩般事。此等人，畢竟治産學業，兩無爲所成，而其心，東馳西奔，難免枯落之歎，悲切於窮廬之下而已。
- 75) ‘治産’條 [6]: 叔程子侍太中公之日，以家事自任，悉力營辦，細事必親。‘治産’條 [7]: 慎獨齋凡家中冗務，皆自句當，無貽慮於親。(慎獨齋沙溪之子) 沙溪先生，騎

재물을 쓰는 도는 온공이 “수입에 맞춰 지출한다는 말”에서 다 한 셈이다. 재물을 쓰는 병통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인색과 낭비이니 인색한 자는 지출하는 도를 알지 못하고, 낭비하는 자는 그 수입의 이치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⁷⁶⁾

‘財用’에 있어서는 수입에 맞춘 지출을 강조하면서 인색과 낭비하는 태도 모두를 비판했다. 그리고 본래부터 여유가 있는 자는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하나, 의리상 써야 할 것과 예기치 않은 손실에 있어서는 지불해야 하며, 본래부터 여유가 없는 자는 근검하는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은 괜찮지만 가혹한 징수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⁷⁷⁾

지금까지 중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총 20개의 항목인데 산운은 하루 사이에 마음을 쓰고 일을 행함에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고 했다.⁷⁸⁾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師弟와 夫婦를 중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 여러 물품에 대한 유래와 견해는 생활사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3) 冠婚喪祭와 處世 - 下篇 -

하편은 모두 11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冠婚喪祭는 4가지 모두를 고르게 다 다루었고, ‘接賓友’와 ‘擇交遊’에서는 接人의 문제를 다루었다.

馬, 善飼常肥, 鞍勒常完好, 所行道路, 常汎掃, 籬落, 常修飾, 此等委曲節目, 不動聲色, 安而服行.

76) ‘財用’條 [1]: 財用之道, 溫公量入爲出之言, 盡之矣. 財用之病, 有二, 吝嗇也, 浪費也, 吝嗇者, 不知爲出之道, 浪費者, 不量其入之理.

77) ‘財用’條 [3]: 素有者, 不當一毫浪費, 素無者, 尤不當期欲成積. 素有者, 以奢泰, 浪費則不可, 如以義理之用, 不虞之失, 而傾置無餘, 亦復何恨也, 素無者, 以勤儉, 自成萬鍾, 則何不可, 如以箕歛之取, 橫猝之得, 瞻足不厭, 何足復道也.

78) 右二十條, 一日之間, 其心行事爲, 不可毫末已也, 已則非人也. 撫其天理人事不容已者, 節時弊, 酌人情, 而溯本齊末, 就簡便, 刷支繁, 以爲中篇.

‘處變’과 ‘關異端’에서는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祭器는 반드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祭物은 반드시 풍성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힘써서 예법대로 하여야 하며. 祭需는 예에 정해진 품목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부귀한 가문들이 아주 진귀하고 성대하며 피기하게 갖춰서 많은 음식을 높이 괴어 올리는 것을 힘쓰니 크게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가난한 집 사람들은 곧 그 정성을 쓰지 않고 으레 생략하여 먼저 붉은 깃발을 세운다. 더러는 마음과 같이 성대하게 차리지 못하면 곧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을 다반사와 같이 여기니 어찌 효경하는 정성이겠는가.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이끼와 같은 것을 올리더라도 어찌 유쾌하지 않겠는가.⁷⁹⁾

먼저 祭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위의 글은 祭器, 祭物, 祭需를 갖추는 태도를 언급하고 부귀한 가문의 지나치게 과도한 제사상 차림을, 가난한 집안의 도에 넘는 祭禮 생략과 제사 자체를 지내지 않는 일들을 각각 비판하였다. 무엇보다 제사에 관련된 물건의 豐薄 여부보다는 정성이 주가 되어야 함을 말했다. 이다음 항목에서는 곡식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선비나 仁人の 경우는 제사를 빼먹는 것도 무방하다고 예외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⁸⁰⁾

이외에도 齋戒의 절차⁸¹⁾와 散齋와 致齋의 적절한 행동을 설명하였다.⁸²⁾ 參禮에는 齋宿을 권하고 예법에 맞춰야 한다.⁸³⁾ 제사 지내는 시간

79) ‘祭祀’條 [8]: 祭器, 必潔精, 祭物, 必務豐潔, 如禮. 祭需, 禮之定品, 今富貴家, 珍盛怪奇之備, 以多品高排爲務, 大不可. 貧乏之人, 則不用其誠, 輒以省約, 先立赤幟, 或不能如心盛備, 則廢闕, 如茶飯, 安有孝敬之誠也. 盡誠則雖溪毛之薦, 豈不校乎.

80) ‘祭祀’條 [9]: 若孤貧清節之士, 或其無求粟之仁人, 則哀痛廢闕, 亦不可這這苛責, 可勝歎悼. 寧廢不當以苟且鄙辱之求 而祭之.

81) ‘祭祀’條 [1]: 祭祀齋戒之節, 勸古酌今, 則親忌, 三日, 祖以上, 二日, 同總以上, 至暮, 一日. (若有至性過人之行, 則何可準此)

82) ‘祭祀’條 [2]: 散齋二日, 致齋一日. 散齋者, 不吊喪, 不問疾, 不茹葷(南草當不吸), 不飲酒, 不食肉, 凡凶穢之事, 皆不得預. 致齋者, 不聽樂, 不出入, 齊其不齊之思

은 답우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전날 제사를 지내면서⁸⁴⁾, 제사를 지내는 날에 제계를 그만두는[罷齊] 풍조를 비판하고 있다.⁸⁵⁾

모든 제사는 家禮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며, “제사는 집집마다 고유한 예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 비판했다.⁸⁶⁾ 그러면서 율곡의 말을 들어 제례가 문란하여 오랑캐의 풍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하였다.⁸⁷⁾ 餽禮, 禰墓祭와 歲節祭에서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기는 하나, 忌祭에서는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았다.⁸⁸⁾ 다른 제사는 도외시하고 忌祭만을 챙기는 것이나, 제사에 사람을 불러다가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은 불가하다 했다.⁸⁹⁾

불행히도 죽게 되면 그 마음에 모든 조그마한 생명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한 나머지에 마침내 그 절명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차마 하지 못하

慮, 只專心想念所祭之親, 思其居處, 笑語, 心志, 樂嗜之謂也. (若不身事之親出其手跡而寓慕焉.)

83) ‘祭祀’條 [3]: 參禮節祀則齊宿.

84) ‘祭祀’條 [4]: 今人, 祭多是以鷄爲限. 故每犯張子中夜祭非禮之戒. 而俗入齊者, 當祭之日, 而或有齊戒於是單日者, 祭之明日, 以爲罷祀日云, 是豈成說乎, 是實由於夜祭故也.

85) ‘祭祀’條 [5]: 故既祭之日, 則以爲罷齊, 而少無感愴之意, 故意恣行, 聽樂設燕, 無所不爲, 可歎也已.

86) ‘祭祀’條 [10]: 凡祭祀, 當依家禮. 今人家奉先之禮, 違於家禮者, 多皆由於不講. 而致之未失. 我東士夫家, 大小大, 莫不師法朱子, 而獨於奉先之禮, 有若家禮之本於儀禮, 而擲節損益, 以爲一代正大之禮, 不啻章章, 而一一不從, 因循未失之過, 反欲文之曰, 祭有家家禮, 可笑者也.

87) ‘祭祀’條 [11]: 有志者, 當依栗翁之訓, 詳審做行. 而父兄, 若不欲, 委曲陳達, 期於歸正, 可也. 栗翁, 又以祭禮之紊亂, 歸之夷虜之風, 可不惧哉.

88) ‘祭祀’條 [13]: 餽禮, 四時正祭, 有歸胙燕飲之節, 禰墓祭, 歲節祭, 則或頒於隣人僚友. 至於忌祭, 哀痛之餘, 不當出門, 朱子退翁, 皆行之, 後學, 所當深體者也.

89) ‘祭祀’條 [14]: 近來禮壞, 人家, 自士夫家, 及至閭巷編氓, 祭之名, 只知忌祭. 祭之日, 又有分食餽餘之俗, 習俗之弊, 不可變, 可勝歎哉. 然而親戚與隣人之至近相居者, 似不可澆洗. 且飢乏者, 若將有待. 此實人情所難, 其於招延醉飽則大不可也. 此實人情之不得已, 若如禮行之, 則尤豈不敬服於頽俗之日歟.

는 마음이 있어서, 그 구제하는 방법을 다하지 않은 후회를 이길 수 없게 된다. 하물며 부모의 생명을 구하다가 할 수 없게 되면 발을 구르며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슬퍼하고 원통해 하는 정은 곧 바로 어버이의 시신 옆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할 수가 없게 되면 평소처럼 똑 같이 할 수가 없으니, 먹지 않고 발을 구르며 곡소리를 끊이지 않게 한다.⁹⁰⁾

‘居喪’에서는 喪禮의 전반적인 의미와 부모님의 喪事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救命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가, 끝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평소와는 다르게 슬퍼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居喪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居喪 초기에는 故人이 혹시나 되살아날까 하는 헛된 믿음을 품다가 3일이 되어도 소생하지 않으면 온갖 일을 그만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거친 음식을 먹는다.⁹¹⁾ 추모하는 마음으로 3년을 거상하다가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지만 부모를 잃은 애통한 심정은 평생토록 유지해야 한다.⁹²⁾ 삼년복부터 석달복까지 모두가 陰數가 아니고 陽數인 것은 陽이 삶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여기는 것은 어버이를 차마 죽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⁹³⁾ 산운은 거상의

90) ‘居喪’條 [4]: 不幸不諱, 則其心, 以爲凡微小生命, 目視手按之餘, 竟見其絕, 不忍爲心. 不勝其不盡可救之方之誨矣. 況救父母之命而不得, 則不斃踴哀慟, 自不得已也. 哀寃之情, 卽欲溘然親尸之側而不得, 則不當與平常時同, 故不食暨踴, 哭不絕聲.

91) ‘居喪’條 [6]: 皇皇如有求, 而三日不生, 則不生矣. 於是衣服也、居處也、飲食也, 凡百生人之事, 皆廢却焉. 僅以凶穢惡陋之御, 只保一縷之命. 使不至絕而已.

92) ‘居喪’條 [7]: 哀寃之慟, 宜絕於親始死之日, 而不絕者, 治喪繼後, 不可代之他人. 故先王祭禮. 自始死三日後. 節節就輕. 漸開生路. 至三年而爲平常人. 其心之孺慕哀寃, 終身如一日, 豈以三年而盡之乎. 必斷以三年者, 子曰, “子生三年然後. 免於父母之懷” 禮曰, “何以三年也, 曰加隆焉爾也” 聖人, 初欲爲父母期. 加隆故, 三年也. 黃帝時, 尙質, 行心喪以終身. 唐虞時, 雖行心喪, 斷以三年, 三王以後, 澆僞漸起, 故制喪服, 表哀情.

태도가 故人을 추도하는 자연스런 마음에서 시작하여 형식적인 절차로 발현된 것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거상의 예가 사라지는 풍토에 대해 통탄하였다.⁹⁴⁾

冠을 쓰는 것은 어른의 도이다. 그런데 어른이란 것은 기혈이 씩씩한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머리에 갓을 씌우는 것은 장차 人道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니, 그 예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程子께서 말씀하시길 “관례가 사라지자, 천하에는 어른이 없어서 어른의 일을 가지고 책임을 지우지 못했으니 곧 그 몸을 마치도록 어른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⁹⁵⁾

‘冠’에서 冠禮와 笄禮를 다루고 있다. 관례는 어른으로 인정해 주고 책임을 지워주는 중요한 의식인데, 程子の 말을 빌어 관례가 사라지면서 참다운 어른도 나올 수 없는 세태를 아쉬워하고 있다. 군대에서 아들에게 관을 씌웠던 尹穀⁹⁶⁾과, 三加禮를 중시했던 黃德吉⁹⁷⁾의 예를 통해 사대부의

93) ‘居喪條 [9]: 三年·期·九月·五月·三月, 皆陽數也. 喪凶也, 宜陰而用陽者. 陰, 致死, 陽, 致生也. 死而致生者, 不忍死其親之意也.

94) ‘居喪條 [10]: 凡居喪之禮, 非人之安排強爲者, 實天理之自然也, 仁情之難誣者也. 故居喪不謹, 禮防甚嚴. 又有國法, 後世, 失其本心者多. 乃充其慾, 欲便其身, 居喪之禮, 掃地盡矣, 可勝痛哉.

95) ‘冠條 [1]: 冠者, 成人之道也. 成人者非氣血壯大之謂也. 加冠於首, 則將以人道之成, 責之也, 其禮, 可謂重矣. 故程子曰, “冠禮廢而天下, 無成人, 不責以成人之事, 則終其身, 不以成人望也”

96) ‘冠條 [2]: 宋末尹穀, 冠其子於軍中, 人語其蒼黃, 正色曰, “以先王冠服, 入地見祖先, 可矣” ‘冠條 [3]: 我朝黃下廬, 一日, 有加冠來見者, 問知其不行三加禮, 發歎以爲“人而不以成人, 責之, 則以禽獸待之, 可乎” 命冠者臨前, 手脫其冠, 大讀初加祝而輒加焉, 再三加, 皆如是, 曰“此, 周公禮也. 我東崇禮之邦之人, 不以禮成人, 豈不寒心哉” 古人之重此禮, 蓋如此也.

97) ‘冠條 [3]: 我朝黃下廬, 一日, 有加冠來見者, 問知其不行三加禮, 發歎以爲“人而不以成人, 責之, 則以禽獸待之, 可乎” 命冠者臨前, 手脫其冠, 大讀初加祝而輒加焉, 再三加, 皆如是, 曰“此, 周公禮也. 我東崇禮之邦之人, 不以禮成人, 豈不寒心哉” 古人之重此禮, 蓋如此也.

가문에서 관례가 사라지는 것을 비판한다. 율곡의 말을 들어 冠禮는 세속을 따르지 말고 家禮에 의거해야 한다고 보았다.⁹⁸⁾ 笄禮⁹⁹⁾는 관례보다 더욱더 행해지지 않고, 실행하더라도 혼인날 하루 앞서 형식적으로만 행해졌다.¹⁰⁰⁾ 이 당시만 해도 점점 冠禮와 笄禮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 종조형인 知有齋 공이 일찍이 말씀하셨다. “지금 풍속에 혼례에서 친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드물다. 남자가 문을 나서 신부 집에 가서 부부가 서로 절을 한 뒤에 여자의 집에서 머물고 3일이 지난 뒤에야 돌아오니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굽히는 것이다. 이후에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 징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부인의 손아귀에 꼭 잡혀서 다시는 감히 평생토록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상할 것이 못된다.”¹⁰¹⁾

‘婚禮’에서는 크게 親迎과 喪中 혼례, 혼인 풍속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먼저 친영은 혼례의 六禮가 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아 오는 것이다. 바로 앞선 글에서 친영의 예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人倫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다.¹⁰²⁾ 자신의 종조형인 지유재 공의 말을 들어 친영을 지키지 않고 처가에서 3일을 머

98) ‘冠’條 [10]: 栗谷曰, “冠昏之禮, 當依家禮, 不可苟且從俗.”

99) 계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가 된다. 李匡呂, 『李參奉集』, 『論東國女子不笄三則』.

100) ‘冠’條 [8]: 女子年十五而加笄, 猶男子之冠. 我東慕古之俗, 禮無不備, 而至於笄禮, 不行, 尤已久. 好禮之人, 女子昏日前期, 或有行之者.

101) ‘昏’條 [4]: 我從祖兄知有齋公, 嘗言今俗, 昏禮親迎者蓋鮮矣. 男子出門初行, 而夫婦交拜後, 因留女氏家, 過三日而返, 是男屈於女. 他日牝鷄之晨, 已兆於此. 故世之人, 莫不拘執於婦人手中, 不復敢舉動於平生, 宜也, 非異哉.

102) ‘昏’條 [3]: 今俗, 不復見親迎之禮, 是剛柔之道, 顛倒也. 剛柔之道, 顛倒, 則陰陽之理乖戾, 而天地失位矣. 人倫, 惡得而明也. 故俗尚, 莫不以淫慾相與而已, 雖欲品物遂而天命全, 其可得乎.

무는 일이 평생 여자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단초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상중의 혼례를 언급하면서 아내의 장례를 치룬 뒤에 곧바로 새아내를 맞는 일과 부모의 상중에 자녀의 혼인을 치르는 풍속을 오랑캐만도 못하다고 했다.¹⁰³⁾ 혼인 풍속 중에서 배속의 아이나 갓난아이를 놓고서 혼인을 미리 정하는 일,¹⁰⁴⁾ 같은姓의 아내를 얻거나¹⁰⁵⁾ 다른姓이지만 본관이 같은 아내를 얻는 일,¹⁰⁶⁾ 혼인을 하는 데 재물을 따지는 일¹⁰⁷⁾ 등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이외에 지면 관계상 다 다룰 수 없었던 남은 항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應邦役’에서는 나랏일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간략히 적었다. ‘接賓友’에서는 友道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出入’에서는 외출 시의 正道에 대해 언급했다. ‘擇交遊’에서는 크게 世誼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편비된 안목(偏目)에 대한 비판, 연소자에 대한 무시 등을 다뤘다. ‘疾病’에서는 병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담았다. ‘處變’에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다뤘고, ‘關異端’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극력 비판하였다.

여기에서 다루었던 11개 항목은 일과로 해야 할 일과는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평생에 지켜야 할 일들이기에 기록했다고 산운은 밝히고 있다.¹⁰⁸⁾ 관혼상제의 의미와 문제점을 주로 다루고, 말미에서는 다양한 관심

103) ‘昏’條 [8]: 禮曰, “妻亡者, 雖除服, 必三年然後娶, 達子之志” 又曰, “因父母之命, 或年過四十, 無子者, 許期年後當改娶” 今之人, 妻喪在殯, 猶欲求昏, 葬後, 卽娶, 因以成俗. 在父母喪中, 及朞服在身者, 成子女昏, 知以若固行之之禮, 乘喪爲昏者, 亦有之. 所謂禮之大防, 壞廢無餘, 還有夷戎之不若, 悲歎何及.

104) ‘昏’條 [5]: 指腹爲昏, 自韋放張率始. 溫公之言, 詳在諸書. 深非輕許昏於襁褓之中. 或指腹而定者, 眞格言至論, 當爲後法也.

105) ‘昏’條 [6]: 白虎義, 不娶同姓, 取與禽獸同.

106) ‘昏’條 [7]: 我朝名相, 有娶於異貫同姓者. 皇明人, 問知之, 深非刺之. 古人曰, “雖異貫同姓, 決不可昏” 豈異禽獸.

107) ‘昏’條 [10]: 昏姻之家, 先察婦善行, 及家法何如, 溫公, 言之盡矣. 昏娶而論財, 以爲夷虜之風, 駟僮賣婢之法, 君子不入其鄉, 文中子, 言之詳矣. 此不復論.

주제들을 다뤘다. 전반적으로 전 시대의 가치와 격식이 붕괴되는 현상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담았다.

4. 결론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다양한 일과지침서가 등장한다. 일과지침서는 하루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시간대 별로 정리하고 있다. 내용은 부모님 봉양, 독서와 공부, 업무 지시, 자제들의 공부 점검, 집안 대소사, 接人 과 接待 등이다. 이번에 소개한 이양연의 『一日行事大略』도 이러한 일과지침서 중 하나이다. 산운은 19세기에 주로 활약한 문인이다. 가장 핵심적인 생활 준칙은 역시 효도였으며, 이것이 다른 행동에 대부분 깔려 있었다. 또, 격변의 시기에 時俗의 변화와 붕괴를 그대로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선비의 안타까운 시선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一日行事大略』은 3권 1책인데 3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서는 사친과 독서를 중심으로 7개 항목을, 중권에서는 몸과 정신, 태도, 인간관계 등 20개 항목을, 하권에서는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11개 항목을 다루고 있다. 상권은 기존의 일과지침서처럼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있지만, 중권과 하권은 인간사의 다종 다기한 관계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산운이 밝힌 것처럼 하루에 지켜야 할 일이지만 평생 동안 지켜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38개의 항목을 다른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저자의 편찬 의도에 따라 각 권의 편제별로 살펴보았다.

요즘 시테크와 자기계발서가 크게 주목받고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끌어내기보다는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는

108) 右十一條, 自祭喪之重大, 次及其下, 無非人所當行道理. 而與日日常行者比, 固有間, 然不得不盡心力於一生者. 故爲下篇而終.

데 치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다. 『一日行事大略』에는 이미 시효가 만료된 가치도 있지만 인간 사회의 보편적 문제를 담은 것들도 적지 않아,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一日行事大略』은 다른 일과지침서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안정복의 『下學指南』과 윤최식의 『日用指訣』은 해당 항목에 조선과 중국의 서책과 인물 사례를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一日行事大略』은 이러한 인용도 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관점을 기술하였다. 안정복의 『下學指南』이 전반부에 시간대별로, 후반부에 주제별로 구성하고 있는데, 『一日行事大略』도 상편에서는 시간대별로, 중편과 하편에서는 주제별로 구성하고 있다. 조선과 중국의 일과지침서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서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 일과지침서의 조선 후기에 집중적인 등장과 일과지침서들의 비교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安鼎福, 『下學指南』.

尹最植, 『日用指訣』.

李亮淵, 『山雲集』.

_____, 『臨淵堂別集』.

黃德吉, 『日用輯要』.

김순희, 「下廬 黃德吉의 『日用輯要』 考察」, 『서지학연구』 제59집, 2014.

박동욱, 「山雲 李亮淵의 詩世界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_____, 『눈 내린 길 함부로 걷지 마라 - 산운집』, 소명출판, 2021.

_____, 「臨淵堂別集 제가 평으로 살펴본 山雲詩의 특징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54집, 한국시가학회, 2021.

_____, 「山雲 李亮淵 한시에 나타난 민요정서의 한시적 변용」, 『동방한문학』 제 89집, 동방한문학회, 2021.

_____, 「산운 이양연 한시에 나타난 허무 의식 연구」, 『漢文學論集』 61집, 근역

한문학회, 2022.

박동욱 역, 『일용지결』, 한국국학진흥원, 2018.

윤성호, 「선비의 日課 공부: 『일용지결』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1집, 한국교육사학회, 2019.

정환희, 「조선 후기 사대부의 일일지침서 연구: 성리학적 공부론을 중심으로」, 『동방학』 36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7.

조현철, 「『日用指訣』에 나타난 조선 후기 선비의 일상」, 『횡단인문학』 제7호,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투고일 2022. 4. 24 심사시작일 2022. 5. 21 게재확정일 2022. 6. 14

Abstract

A Study on the 『一日行事大略』 by Lee Yang-yeon in Sanwoon

Pak, Dong-uk

『一日行事大略』 is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the Korea University Library. This material is a manuscript in three volumes. The preface was written in 1839 (Sanun was 69 years old), indicating that the book was written before that. 『一日行事大略』 is a guidebook for daily routines organized by time period.

There are a total of 38 items in 『一日行事大略』. In the upper volume, 7 items are dealt with mainly on family and reading, in the middle volume 20 items such as body and mind, attitude, and human relations are covered, and in the lower volume 11 items are dealt with mainly on ceremonial occasions. The upper volumes are recorded by time like the existing daily guidebooks, but the middle and lower volumes comprehensively deal with various relationships and problems in human affairs. As Sanwoon said, it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keep in one day, but it is something we have to keep for the rest of our lives. Although the 38 items could be classified in different ways, I looked at each volume by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author's intention to compile.

Citech and self-help books are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and consumption these days. However, this is not without its problems because it focuses on packaging and exaggerating oneself rather than bringing about true inner change. Although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already expired in 『一日行事大略』,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contain universal problems of human society, providing reading not only for researchers but also for general readers.

Keywords Yang-Yeon Lee, 『一日行事大略』, daily routine, self-improvement book, ceremonial occasion.